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헤즈볼라 공격으로 전투 격화 속 복음 전파 여전



어린이 포함 청소년 12명 사망...20여명 부상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축구장에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로켓으로 공격해 1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망했다. 이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가 시작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공격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돌리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기독 단체 ‘하트 포 레바논’의 톰 아테마(Tom Atema)는 “모두가 그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방에 증거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는 2006년 양측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격렬하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매일 고통을 겪고 있다. 아테마는 “약 10만 가구가 국내 난민이 되었고, 58개의 레바논 학교와 교육 센터가 문을 닫았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며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겠는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트 포 레바논은 구호 물품과 어린이 여름 캠프를 통해 레바논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희망의 여름’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실한 탈출구를 제공한다.

아테마는 레바논 남부에서는 거의 매일 여러 대의 드론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이스라엘 제트기가 방음벽을 뚫기 위해 낮게 비행하며 로켓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살, 10살, 11살 소년이나 소녀가 하루에 여러 번 제트기가 굉음을 낼 때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평생 지속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테마는 “우리는 2006년부터 해온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이 좋지 않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보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료함, 보호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레바논 남부에서 로켓이 발사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4:16-17)**

하나님,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어린이, 청소년이 사망하여 흑암에 앉은 레바논 땅에 주의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고 매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레바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헤즈볼라를 붙들었던 악한 권세가 떠나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빛의 전사로 서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중국 업체, 인체 이식용 재료 위해 시신 4,000여 구 훔쳐

인체 이식용 제품 생산을 위해 4,000여 구의 시신을 훔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산시성에 위치한 아우루이(奧瑞)생물재료유한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신과 시신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들이고, 시신과 유골을 인체 이식 재료 제품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중국 수사당국은 2015-2023년 이 업체는 총 3억 8,000만 위안(약 730억 원)의 영업소득을 기록했으며 인체 골격 재료 및 반제품 18여 톤과 완제품 3만 5,077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우루이 최고경영자 쑤(蘇)모씨는 장례식장 네 곳의 화장장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쥔 후 화장장 직원들을 시켜 시신을 훔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자백한 용의자는 75명에 이른다고 진술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잠언 21:7-8)**

하나님, 인체 이식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시신을 훔쳐 불법을 행하며 불의한 재물을 쌓은 경영자와 관련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욕과 탐심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길을 곧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완전한 돌이킴의 회개 있게 하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행하여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표증이 되게 하소서.

### ▲ 콜롬비아, '예수를 위한 행진'에 수천 명 참여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개최된 '예수를 위한 행진(March for Jesus)'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6일 전했다. 지난 4일 콜롬비아복음주의연합(CEDECOL)과 가톨릭 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콜롬비아의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콜롬비아 TV 네트워크인 카라콜 텔레비시온은 이번 행진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콜롬비아인이 국가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기자 나탈리 아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정치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을 중단하고 무장 단체와의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예레미야 31:7)**

하나님, 예수를 위한 행진을 통해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랜 내전과 테러, 범죄가 만연한 콜롬비아에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힘 있게 전해져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무장조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기도로 간구하여 의와 평강이 꽃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캐나다 장애인들, 의료진에 안락사 압박 받아...평생 트라우마 남아**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들이 의료진으로부터 안락사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이프뉴스가 뉴욕포스트(NYP)를 인용해 26일 전했다.

몇 년 전 앨버타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안락사를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헤더 핸콕은 치료를 받던 중 힘들었던 아침을 회상하며 “몸이 잘 움직이지 않자 병동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정말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살아있지 않다. 당신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핸콕은 캐나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대신 죽음을 선택하라는 제안으로 느껴져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던 핸콕은 간호사에게 “누가 당신에게 삶과 존재하는 것을 판단할 권리를 주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간호사는 “이제 당신은 이기적으로 구는군요”라고 대답했다.

핸콕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데리고 나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며 “내 생명이 다른 어떤 생명보다 덜 소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방을 나갔고 핸콕은 그 간호사를 자신의 진료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다른 간호사의 태도도 핸콕이 겪은 이전 간호사와 마찬가지로였다.

이에 핸콕은 뉴욕포스트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하지만, 종종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일부 의사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안락사가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핸콕은 “그들은 나를 세상에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는 존재처럼 인간 이하로 느끼게 한다. 의사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락사 방지 연합의 전무 이사 알렉스 샤덴버그는 의사 조력자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를 선택사항으로 제안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요 병원에는 안락사 팀이 있다. 이 팀은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안락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뇌실조(cerebral ataxia)증을 앓고 있는 로저 폴리는 온타리오 주 런던에 있는 정부 지원 시설인 빅토리아 병원의 간병인에게서 조력 자살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를 제안받은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동안 그 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평가절하된 느낌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4:6-8)**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진들이 종종 장애인들에게 안락사를 강요하는 인권유린의 비참한 현장을 주님께 고합니다. 한 생명을 존재의 가치로 보지 않고 생산성과 결부시켜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하는 의료진들을 꾸짖어 주시고 배후의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들의 상한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고 무너진 생명윤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캐나다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북한, 수해를 선전선동 기회로 삼아… 주민들, 극심한 피로감 호소

북한 당국이 최근 발생한 수해를 대대적인 선전선동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지역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방송차와 선전대가 매일 아침저녁 쉴 새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피해 복구 지원사업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어 주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장 내 새끼 뭇 먹이나 걱정이데 속 시끄럽게 종일 떠들어 댄다”, “뭉가 그렇게 크나큰 사랑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수령복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남신주의의 한 여성은 지난달 말부터 남편은 물론 온 가족이 지원 및 동원사업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배급이 없어 내가 하는 먹거리 장사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 하지 못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15,23)**

하나님, 최근 발생한 수해를 대대적인 선전 선동의 기회로 삼고 있는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교훈하여 주십시오.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까지 복구에 동원시켜 더욱 빈곤에 처하게 된 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에게 환난 날에 건지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새롭게 하소서.

### ▲ 이란, 아랍권의 ‘이스라엘 상대 보복 자제 요청’ 거부

이란이 아랍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상대 보복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전쟁을 일으켜도 상관없다’며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4일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에 암살에 대한 대응을 만류하는 주변 아랍국들의 요청을 이란이 묵살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이란측은 아랍국가 외교관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전쟁을 촉발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도 유럽과 다른 협력국 정부에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이 맞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자국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베드로전서 3:10-11)**

하나님, 아랍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전쟁을 일으켜도 상관없다며 무력 대응을 행하려는 이란을 다스려 주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십자가의 화평을 중동지역에 선포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몸 된 교회가 간구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진리로 빛으사 성령 안에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 운동 진행 중**



최근 대법원이 남자 동성커플을 유사 결혼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적 상황이 한층 더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질서 바로잡기, 행동하는 크리스천 시민연대’(이하 행크)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결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주는 국민건강보험 혜택(피부양자 자격)을 동성에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결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혼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결합이라는 법적 정의를 위반하는 판결(헌법 제36조 1항)”이라고 행크는 지적했다.

행크는 “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 권한도 없는 현실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판결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동성에 동성혼 입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국회 앞에서 반대입장을 외쳤지만, 하루아침에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국 교계가 쌓아 올린 방파제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성혼 입법을 방관한다면, 동성결혼이 수년 내에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족 정의가 불법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자녀 세대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성경적 교육이 혐오 교육이 되어 자녀들의 성 윤리가 왜곡되어 영혼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은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으며,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행크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행크는 이번 시민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진선 목사(기쁨의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6,22-23)**

하나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말세에 대해 주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한국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성 혁명의 물결로 한국과 다음세대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간계를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막아서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일에 기도의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을 쉬지 않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전된 신부 된 교회로 주님을 맞이하는 한국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아프간, 올해 상반기 기상이변으로 3만 8,000명 집 잃어

올해 상반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상이변으로 최소 3만 8,000명이 집을 잃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어린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이 밝혔다. 6일,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내부 이재민 모니터링 센터(IDM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가뭄, 이상기온,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으로 인한 이재민 수가 2023년 전체 3만 7,07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 모니터링 센터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아동별 분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집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의 절반이 아동이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프가니스탄 담당 아르샤드 말릭은 “아프가니스탄은 놀라운 빈도로 극심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 올해만 해도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후 위기는 아프가니스탄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후서 1:3-4)**

하나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재민의 수가 더하여 삶과 생계가 더 치열해진 아프간을 돌보사 환란 중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여 공급이 결핍된 곳에 온전한 섬김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십시오. 정복자들의 포악과 통제로 고통받는 아프간에 복음을 계시하사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주로 인하여 고난을 이길 믿음을 교회에 더하셔서 주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 ▲ UMC 나이지리아 감독 “성경적 원칙 벗어난 동성애 축하할 수 없어”...교단 탈퇴

연합감리교회(UMC) 나이지리아 주교구의 감독이 교단의 동성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한 것에 반발해 자신의 연합감리교회 직책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단체의 일부 또는 전월도 그와 함께 떠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 협의회 대변인은 교단 지도부가 존 웨슬리 요한나 감독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임은 5일부터 발효된다. 요한나 감독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올해 초 동성혼과 독신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를 허용하기로 한 교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요한나 감독은 “우리는 교회가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동성애를 축하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6-7)**

하나님, 동성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성경적 원칙을 따르기로 한 요한나 감독과 나이지리아 교회를 더욱 주와 그 말씀께 의탁합니다. 이들의 결단이 복음을 변질시킨 이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헛된 속임수와 교묘한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행실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뿌리내린 온전한 예수교회를 통해 선교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